

“차레상에 수입산 올라야겠어요”...제수품목 바꾸는 高물가

■추석 차례상 이렇게



※차례상은 지역이나 가문마다 조금씩 다르나 어동육서, 좌포우혜, 조율시 원칙을 따른 상차림 예시.

전통시장 기준 광주 28만 6530원·전남 28만 1590원 예상 축산물·과일 값 크게 오르며 차례상 간소화·수입산 고려도

울 추석(9월 17일)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난해 추석보다 9%가량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정부 들어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수입산으로 차례상을 차려야 할 처지라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울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8만 7100원으로 전년보다 9.1% 상승했다. 물가협회가 분석한 광주·전남지역 울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광주는 28만 6530원, 전남은 28만 1590원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에 견줘 4.4% 상승했다. 광주·전남지역 추석 차례상 비용의 경우 23만원(2020년)에서 25만 2100원(2021년)에서 27만 4400원(2023년)으로 7.9% 뛰었고 다시 28만 6530원(2024년)으로 4.4% 오르는 등 매년 크게 오르고 있다. 명절 상차림 간소화와 차례상에 올릴 품목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제과 상승률은 10%를

웃돌 것이라는 게 물가협회 분석이다. 광주의 경우 축산물 가격이 9만 6010원(33.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과일류(8만 6170원·30.1%), 가공식품류(5만 2830원·18.4%), 채소류(2만 8020원·9.8%), 수산물(2만 4080원·8.4%) 순으로 집계됐다. 축산물 중 닭고기(1kg)가 전년 대비 10.2% 올랐고 산적용(우둔·600g)이 6.3%, 돼지고기(목삼겹·1kg)는 5.8%, 계란(특란·10개)이 5.3% 오르면서 차례상 대표 음식인 전 부치는 것도 부담스럽게 됐다. 이외 가공식품류에서는 밀가루(12.4%↑), 약과(17.2%↑) 등이 올랐다. 전남도 역시 축산물(10만 1470원) 비중이 가장 높고,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모두 전

년 대비 5~10% 상승률을 보였다. 과일 가격도 크게 올라 차례상에 수입산 과일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한숨이 나온다. 사과(부사·5개)는 지난 22일 기준 3만원으로, 전년(2만 2000원)보다 36.4%나 비싸다. ‘금사과’라는 말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22년(1만 2500원)에 비해 무려 140%나 급등한 셈이다. 나주시 다시면 조영희(여·63)씨는 “매년 추석 15~20명의 가족이 모여왔는데, 먹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올라 음식 장만하는 데 부담이 크다”며 “올해는 사과 대신 저렴한 수입산 과일을 올리고 육전은 맛만 볼 수 있도록 부쳐야 할 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있는지도 몰랐던 ‘농업기상재해 경보시스템’...9월부터 전면 개방

홍보 부족에 가입률 4.38% 불과

정부가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이 농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국민의 힘, 경남·사천·남해·하동) 의원이 농촌진흥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기경보시스템 가입 농가 수는 지난해 기준 전국 78개 시군의 2만 3772가구가 국내 전체 농가(54만 3034가구)의 4.38%에 불과했다.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단위의 기상 및 작물 재해정보를 사전에 예측해 농가에 필요한 대응지침을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강수·바람·일조 관련 기상재해는 3일 뒤까지, 온

도 관련 기상재해는 최대 9일까지 예측해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의 작황 부진이 빈번해져 기상 예측 및 대응이 중요해진 만큼, 조기경보시스템 이용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시스템 만족도 85%를 달성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조기경보시스템 가입률은 지난 2020년 5.93%→2021년 4.97%→2022년 3.71%→2023년 3.48%로 매년 하락해왔다. 이는 고령층이 주축인 지역 농가의 온라인 가입 접근성 부족, 홍보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가 비중이 높은 전남지역의 경우 조기경보시스템 가입률이 타 지역 대비 비교적 양호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남지역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이 운영되는 시군은 17곳, 가장 가입률이 높았던 지역은 곡성군

(39.6%)으로 이달 기준 전체 농가 4674가구 중 1851가구가 가입했다. 이어 순천시(16.5%), 보성군(10.6%), 강진군(8.6%), 장성군(8.2%) 순이었다. 하지만 무안군(2.1%), 구례군(3.1%), 해남군(3.6%) 등 7개 지역은 전국 평균(4.38%)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가 지원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고자 오는 9월 조기경보시스템을 전면 개방해 농민 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 주민까지 회원가입 없이 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조기경보시스템 개방 및 전국 확대를 통해 농업재해 피해가 10% 감소해 연간 1514억 7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스위스 골프웨어 ‘헬베스코’ 오픈



호남 최초...강남점 이어 국내 2호

광주신세계가 호남 최초로 스위스 골프웨어 프리미엄 브랜드 ‘헬베스코’ 매장을 열고, 다양한 골프 제품들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26일 “지난 23일 광주신세계 본관 6층에 헬베스코가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는 호남지역 최초이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이후 국내 2호 매장으로 글로벌 패션 기업인 폰트 그룹이 진행하는 첫 골프웨어 브랜드 론칭이다. 앞서 광주신세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헬베스코 골프웨어를 직매입한 제품을 선보이는 골프샵을 통해 판매해왔다. 이번 광주신세계 헬베스코 매장 오픈은 그동안 지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매출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헬베스코 골프웨어는 모든 생산공정이 스위스 현지에서 이뤄진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스위스 현지 수제화 브랜드에서 시작한 헬베스코의 골프웨어는 특유의 디자인과 장인정신이 담긴 차별화된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광주신세계 헬베스코 매장을 찾아 특별한 골프웨어를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698.01 (-3.68)
코스닥	766.79 (-6.47)
금리(국고채 3년)	2.890 (-0.030)
환율(USD)	1324.35 (-14.45)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APEC 기업자문위원회 위원 선임

민간 외교관 역할 앞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2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한국위원으로 임명됐다. ABAC는 APEC 활동에서 민간 기업의 의견을 각국 정상들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자문기구다. ABAC 한국위원은 외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현상 부회장은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 이사와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세계 3대 중에서도 풍부한 글로벌 감각과 인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조 부회장은 과거 한일경제협회, 한일포럼, 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미재계회의, PBEC(태평양경제협력체) 등 국내·외 대표 경제 교류단체를 이끌었던 선전 고(故)조석래 명예회장의 대를 이어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한·중·일 3개 국가 외교부가 선정한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에 뽑혔고 다보스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에 선정되기도 했다. 조 부회장은

또 미국과 아시아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아시아 21 글로벌 영리터’, G20 ‘젊은 글로벌 리더’ 조직인 ‘YGL G20 이니셔티브’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조 부회장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대한민국의 APEC 의장국 수임을 위한 기업인들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부회장은 “내년도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인 만큼 11월 정상회의 때 민간기업의 입장을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잘 전달해 성공적인 의장국 수임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 환전·해외송금을 맡기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등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노지점 062)531-774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유덕하노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